



북자 유베드루 병원

원장 최베네덕도 신부

병원 설립 목적 및 연혁

유베드루 병원은 인천에서 서남방으로 약 40마일 해상에 떨어진 낙도 덕적도 서포리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경기도 부천군에 속하는 1개면의 섬으로서 3개 “리”를 가지는 인구 약 8,000명의 조그마한 낙도로서 덕적군도에 속하는 8개도서와 영흥면에 속하는 3개도서 응진군에 있는 연평도 소연평도를 육지와 연결시켜 주는 교두보적 위치에 놓여있습니다.

이들 현지의 주민 대부분은 어업에 종사하는 영세민으로서 21세기란 거창한 현대에 살고 있으면서 하등의 문화 문명의 혜택을 못받고 있으며 더군다나 보건 의료면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근대적 과학적 의료 의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온지 70년이 지난 1961년 메리놀회 소속 미국인 최분도 신부에 의해 처음으로 서해안 연평도 내에 북자의원을 개원하여 병원선을 이용하여 도서민의 순회 진료를 처음으로 시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966년에는 현지 덕적도 본당을 세우며 동시에 현재 유베드루 병원을 설립하였습니다.

현신적인 가톨릭의과대학 부속 성모병원의 협조아래 유베드루병원은 입원실 18개와 55개의 병상수 및 수술실 검사실 X Ray Blood Bank 약국 등 병원으로서의 상당한 제반시설을 갖추고 성모병원 소속의 수련의들에 의해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의 전문적인 진료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현재까지 연평균 외래환자 약 20,000명 입원환자 10,000명 정도에게 인술을 베풀고 있

습니다.

2. 현지 실정

현재 유베드루병원에 진료대상이 되는 총인구는 덕적도 덕적군도 영흥군도 연평군도 약 4—5만명으로서 이들 대부분은 어업을 생업으로 하고 있는 영세민으로서 이들 교육 수준은 대부분의 무교육 정도에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으로는 일개리 및 군도에 국민학교 및 분교가 있으며 일개면에 중학교가 있는데 비교적 원만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에 비해 보건 의료기관은 덕적도 연평도에 각 1인의 한지의사 출신의 공의가 있을 뿐입니다.

또한 유일한 육지와 의 교통수단인 연락선은 덕적도와 연평도에 매일 1회의 연락선이 있을뿐 그 의 도서에는 한달에 한번 정도의 군소속 배가 들어가는 정도의 완전한 육지와 두절상태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교통수단마저도 급변하는 기후에 의해 한달에 두세번은 3—4일씩 배가 못 올때가 허다합니다. 이러한 모든 실정을 한가지 예로들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있는 약 20마일 남서해상에 북서쪽으로 향한 풍도라는 아주 조그마하고 험한 낙도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생업이 어업만 하는 것으로서 멀리 동지나 해상에서 조업을 마치고 몇달만에 돌아오는 배가 보이면 풍도 기슭에 반가운아나네들이 짓는 저녁 연기가 모락모락 울른답니다.

그러나 매마침 불어오는 북서풍에 눈앞에 보이는 집과 식구들을 보면서도 배를 뱉 수 없어 또다시 기약없이 돌아서야만 하는 이러한 현실

이 도서지역에 특수한 자연 증배적 미신을 더욱 조장시켜 출어 시기에 무당에 의한 굶과 고사가 성행하여지고 있고 또한 구습적 유고사상에 의한 소위 “시어머니”역시 엄연히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과는 달리 아이리니컬하게도 이러한 버려진 순박한 벽지에 모든 국가적 국민적 운영의 혜택이 요원한 마당에서도 시대적 풍조인 “고고”족속의 히피군상단은 이러한 벽지에까지 한없이 파고들어 낙도의 순박성마저 앗아 갈려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3. 병원및 진료 현황

유베드루병원은 병실수 18 병상수 55개를 갖추고 병원장이하 2인의 의사와 18명의 직원으로 4개과(외과 내과 산부인과 소아과)와 임상병리마취 약국 X Ray 혈액은행등 제반 시설 및 30톤급의 병원선(바다의 별)을 구비하고 있으며 진료는 항상 주재하는 의사 2인의 병원치료와 월 1회의 병원선으로 주위 도서를 순회 진료하고 있으며 2개월에 1회씩 일정과에 전문의를 성모병원에서 초빙하여 시대에 따른 전문적 과목에 의한 고도의 인술을 베풀고 있습니다.

치료 현황

과 별	입원인원수	외래인원수	계
내 과	20,040	37,510	57,550
외 과	20,620	30,250	50,870
산 부 인 과	7,810	8,050	15,860
경 형 외 과	1,520	1,325	2,845
성 형 외 과	315	105	420
소 아 과	5,370	26,290	31,660
계	55,675	103,530	159,205

치료비 징수 현황

실비징수	%	반환징수	%	무 료	%
52,850명	33%	57,515명	36%	48,890명	31%

그외에 도서 지방에 특수환경에 의한 혈액 자체 보급책의 일환으로 주민들의 혈액형을 등록하여 혈액원을 확보해 놓았으며 전문의 초빙 특

히 국가 시책에 발맞추어 가족계획을 중심으로 한 보건 계몽강좌를 산부인과 전문의에 의해 년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에 이환율이 높은 코레라등의 예방 접종 및 춘추 기생충 박멸운동 심지어는 병원 목욕탕을 개방하기에까지 온힘을 기울려 도서인의 건강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서포리에 간척지 개발 덕적도 전지역에 전기 송전 서포리에 수도시설 미신 타파에 앞선 교회사업및 현주민의 생활향상을 위한 해수욕장 개발 해태양식 양돈사업 등을 장려 지도하는데까지 지식인의 일인으로 은 병원 직원이 앞장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부적인 진료현황은 도표와같이 엄청난 희생에 의하여 인술을 베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수많은 잊혀진 낙도인의 건강교육및 생명을 지켜 왔습니다만 아직도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맹목적이고 숫자만을 메꾸기에 급급한 우리나라 의료행정의 맹점을 이곳 공의 문제에 서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공중보건 의료영역에 속하는 공중보건 및 환경위생 봉사와 한정된 규모사업마저 못하는 이들은 현지 주민들로부터 완전히 도외시되었고 약종상 정도의 역할을 하며 간혹 몽매한 오진으로 주민들의 원성을 사기까지하는 실태입니다.

과연 이들과 같은 공의가 정말 앞으로 우리면에 얼마만한 인술을 베풀지는 이곳 필자가 물어 보고 싶은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서해안 낙도에 위치한 유베드루병원의 모든 업적이 근대 의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온지 70여년이 지나서 그거마저도 외국인 손에 의해 버려진 우리 동포가 구제되고 있다는 현실에 대한 감사에 앞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제나마 뜨거운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사업에 한없이 협력하여준 가톨릭대학 부속성모병원에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 끝 —